

##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현영, 장석진

To cite this article : 김현영, 장석진 (2017)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5:4, 85-10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김현영\*

장석진\*\*

Kim, Hyun-young

Chang, Seok-jin

Abstract : The study aims to develop career group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tudy adopts a program development model designed by Kim Chang Dai (2002), and develop the program and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program. The career group program participants reside in Seoul, the study explores core change experience of group participants based on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methods by Colaizzi (1978). The study result indicates the program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dentity formatio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analyzing participates' experiential change in the program, the result confirms the positive effect and suggests improvement point of the program. The study is useful material and reference when it comes to improve multicultural career education and rais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related to it. Further, the program can be implemented in communities where serving multicultural family such as multicultural career camp, multicultural career counseling, local multicultural center, etc.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Keyword :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a study on the development.

### I. 서론

행정자치부(2016)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1,711,013명으로 전체 인구(51,069,375명) 대비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증가(만 18세 이하 197,550명)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2006년 25,000여명 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단순한 통계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일부는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부진을 초래하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같은 정서장애까지

지 보이고,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또한 이혜진, 장석진(2012)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습적, 교육적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스트레스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며, 언어 학습,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초기의 서비스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욕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은 정책, 학술, 복지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6a; 조봉환, 2010; 조영달, 2006).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한 만 13세 이후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욕구에 부합되는 지원방안은 현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만 13세~15세 전후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독특한 사회, 문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들

\* 주저자(교신저자) : 한국심리연구소소장  
ju7008@hanmail.net

\*\* 공동저자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논문은 김현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논문임.

과는 다른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다. 정하성(2009)의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문제(33.3%)와 진로문제(13.3%)가 가장 높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주변의 편견과 자아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자기이해 부족, 낮은 경제수준에서 야기되는 문화결핍 현상, 학력 부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의 지속은 곧 다문화 청소년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긍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인 '올바른 진로성숙도' 함양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듯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라는 독특한 가정 구성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습 및 진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아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정하성 외, 2007; 통계청, 2016), 상대적으로 많은 진로장벽을 느끼며(박진우, 장재홍, 2014),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다(김효영, 2011; 윤아름, 2013).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어려움이 감소 및 해소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 및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등 올바른 진로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발달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건강한 사회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다문화 학생 특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른 욕구 부분을 포함한 내용과 구성에 대한 심층적 개발 절차가 요청되어야 한다(김혜정, 유진이, 2009; 류성창, 2015). 하지만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들은 그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 청소년과 통합되어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일부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성, 학업중단, 진로와 취업고민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청소년과 구분 없이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만 13세 이후 다문화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집단상담에 대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진로교육과 진로집단상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구영환, 2013; 신선영, 2009; 조봉환, 2010; 최숙경, 2006)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13세~15세 전후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상담 지원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검색에 따르면, '다문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키워

드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6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 논문은 5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성숙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만 13세~15세 전후의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016a)가 발표한 자녀성장지원 중심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목적과 부합하며, 무엇보다도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에서 성장한 다문화 중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들 과반수가 강조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지원(48.3%)에 대한 높은 서비스지원 요구와도 부합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다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당면한 진로장벽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에 효과가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구성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통계적 및 현상학적 질적 분석 측면에서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청소년의 특징과 진로

류성창(2015)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은 많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있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며, 이 태도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뿐 아니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기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임숙, 김희재(2014)도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나 국공립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희망 직업이 모호한 상태인데다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가 부족해 향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진학과 취업에 대비한 기초적 학습지원과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특성들은 미래성장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가치관을 성립할 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올바른 진로 성숙 함양을 위해 지지체계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체계의 한 방법으로 진로집단상담이 있다. 진로집단상담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관련 공통적 문제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기에 개인상담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집단구성원 간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므로 동시에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특성을 오히려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으로 인식하도록 사고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을 구성한다. 그리고 집단구성원 간 상호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다문화청소년과 자아정체성,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교육실태, 사회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금명자 외, 2006; 김경란, 2007; 박순희, 2009).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와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다양한 요인에서 진로장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진로성숙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진로성숙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다문화 청소년과 진로집단상담 주요 변인들(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성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진로, 가치관, 인생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현재까지 이룩한 업적들, 출신과 신분 등을 비롯하여 이상과 현실에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양지웅, 2005). 이 고민들은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 중 일부는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로 인식하는 이중적 규정이 정체성 혼란으로 경험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2016), 다문화 청소년들 중 24.5%는 여전히 자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열악한 가정환경, 독특한 외모, 이중 언어 및 문화에서 오는

혼란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예민한 시기와 맞물려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다문화 청소년과 자아정체성의 관계(김경란, 2007; 김은경, 2016; 윤아름, 2013)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정서적인 발달 간의 괴리에서 오는 역할 규정 및 자아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Marcia(1966)는 올바르게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의 성취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기성장을 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벌과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단계인 중학생들은 이전보다 성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는 과도기적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능력, 흥미를 바탕으로 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지민(2013)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진로에 대한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군이 없고, 그나마 있다하더라도 결정 수준도 낮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더 민감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열악한 경제 상황,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 학습부진, 타인의 편견, 남과 다른 외모,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박진우, 장재홍, 2014; 최광현, 2016). 다문화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은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 또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탐색하며, 실행해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든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률(89.9%)은 전체 국민

의 93.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의 차를 보였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취학률(53.3%)은 전체 국민의 68.1%에 비해 크게 낮았다(여성가족부, 2016b). 이것은 다문화가정이 여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에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등과 같은 이유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요구조사 및 예비연구를 위해 대면한 다문화 관련 교사 및 담당자, 다문화 청소년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이해의 부족, 학업 및 기타 이유로 야기된 자신감 부족,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이유들도 있었다.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진로장벽 요인들은 결국 올바른 진로성숙을 함양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도 가로막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진로장벽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드시 긍정으로 전환시키거나 스스로 해결 및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진로집단상담과 진로장벽 간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신재은, 2012; 이지혜, 2009)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과 진로장벽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김혜경, 2012; 윤대영, 2016; 이지민, 2013; 이지은, 2016)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집단상담 간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진로장벽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요한 변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부정적 신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 요인을 점검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과의 전환 훈련'을 통한 주체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llis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을 적용한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정하성 외(2007)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제점으로 '비전부재의 문화'를 언급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자포자기 하고 체념하면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벽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경우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 관련 지원들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조봉환, 2010)과 진로성숙(김경란, 2007; 김효영, 2011; 최인숙, 2010)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 자녀들에 비해 진로발달 및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금명자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으로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직(17.1%)을 선호하였으며,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71.4%)이라고 인식했다. 또 희망적 미래를 위해 노력(57.1%)과 학교 및 기술교육지원(24.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고민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일반학생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진로발달과 진로성숙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 가능성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프로그램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 언어와 문화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고, 건강한 진로성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김종선, 2015; 김혜정, 2016; 최윤희, 2010; 허소경, 2015)와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진로성숙도 간의 유의미한 효과를 밝힌 연구(최인숙, 2010)는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3. 프로그램 개발 구성요소 및 적용이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변화의 구성요소를 긍정적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장벽, 진로계획 4가지로 선정하고 총 10회기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성요소 각 영역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에 적합한 학자의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된 이론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자기이해와 직업이해 영역에는 Parsons(1909)가 주장한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을 적용하였다. 특성요인이론은 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써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개인이 인성특성을 식별하여 직업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Parsons는 현명한 직업선택에 관련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적성, 능력, 흥미, 포부, 환경 등에 관한 이해를 말한다. 둘째는 여러 직업에 따른 자격요건, 장단점, 보수, 취업기회, 장래전망 등에 관한 지식이

며, 셋째는 위의 두 요인 간의 합리적인 연결, 즉 내담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자료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로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노력 활동을 말한다(김충기, 장선철, 2011 재인용). 따라서 1~3회기에는 객관적 수치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강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중지능검사, 직업흥미유형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4~5회기에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어울리는 진로를 직업카드 놀이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직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탐색방법 제시와 자료 수집을 유도한다.

진로장벽 영역에는 Ellis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을 적용하였다. Ellis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의 조건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신념을 창조하고 그 신념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생득적·문화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총체적 기능을 하는 존재이며, 사고와 정서 및 행동의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선천적으로 성장과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였다(Ellis & Dryden, 1987). 그래서 Ellis는 내담자가 변화를 원한다면 비합리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신념 체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본 관심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의 목적은 내담자의 인지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여 내담자가 삶에 대한 현실적인 철학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삶에 대한 현실적인 철학이란 자신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자기결정, 융통성, 불확실한 것에 대한 수용, 헌신, 과학적 사고, 자기수용, 위험 감수, 낙원지상주의에서 탈피, 좌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내심, 문제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을 포함한다. 특히 REBT 집단상담은 집단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어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켜줌으로써, 건전한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가 있다(박경애, 1997 재인용).

본 프로그램은 Ellis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의 핵심 모형인 'ABCDE 모형'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llis의 ABCDE 모형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실 A(Activating Event: 선행사건)에 접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행동 C(Consequence: 결과)는 사실 자체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 B(Belief System: 신념)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ABCDE 모형 이론에서 A(선행사건)는 사건·상황·행동 또는 개인의 태도이며, C(결과)는 개인의 반응 혹은 정서적 결과로써 적절한 반응이나 부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반응(C)은 어떤 사건의 발생(A) 그 자체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신념체계(B), 특히 비합리적인 신념체계(B)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D(Dispute: 논박)는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 인지상담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비현실적이고 검증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 가설들을 논박의 원리를 가르쳐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들을 논박하여 내담자가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포기하도록 도와준다. E(Effect: 효과)는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철저히 논박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여 느끼게 되는 자기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로, 내담자의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박경애, 1997).

따라서 6~8회기에는 Ellis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혼란 및 그와 관계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현실성, 논리성, 실용성에 비추어 스스로 논박해봄으로써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전환시키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체적 진로성숙도를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ies)'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 이론은 마지막 구성영역인 진로계획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기이해는 물론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여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진로발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달이론은 특성요인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진로행동의 중단적 표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개념을 더 중요시하는 점에서 특성이론이나 구조이론과 다르다. 즉 특성요인 이론이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면, 발달이론에서는 진로발달을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가 있는데,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Super는 Ginzberg 이론의 미흡성을 비판하고 당시의 직업선택 및 직업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분석, 종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Super(1951)의 진로발달이론은 모든 발달이론들 중 가장 종합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되었던 발달적 개념들에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김충기, 장선철, 2011 재인용).

Super는 1951년에 '진로유형 연구'를 보고했는데 여기서 그는 생애발달에 따른 진로발달의 단계와 각 단계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성장기(출생~14세까지), 탐색기(15세~24세), 확립기(25세~44세), 유지기(45~66세), 은퇴기(65세 이후)로 나누었는데(Super, 1951), 이 중 본 연구자의 관심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탐색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개인의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한다. 이 단계는

다시 잠정기(15세~17세), 전환기(18세~21세), 시행기(22세~24)로 나뉜다. 본 연구자의 관심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은 잠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환상이나 토론,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본다. Super는 직업선택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써 전체 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다. 반면에 진로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차, 능력, 노력, 환경, 문화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발달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유아기에서부터 형성되어 그 후로 전환, 실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발달되지만, 청년 후기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김충기, 장선철, 2011 재인용).

따라서 9~10회기에는 1~8회기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강점, 흥미, 적성,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과 어울리는 진로를 계획하고 단계별로 구체적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집단구성원 간 상호지지를 통해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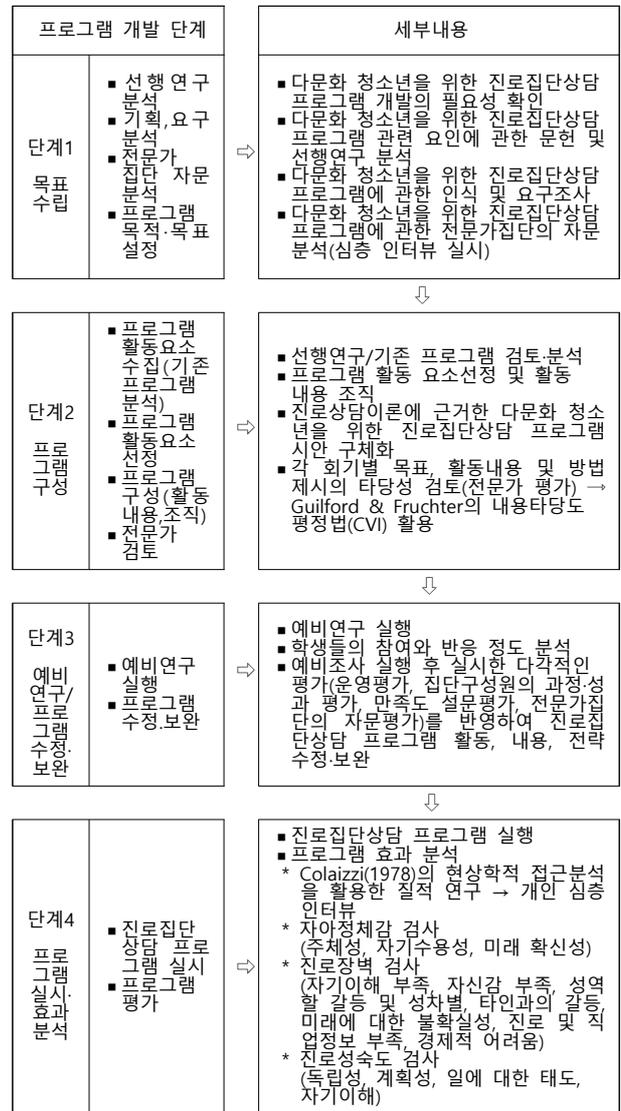
III.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단계에 근거하였다. 김창대는 변창진(1994), 박인우(1995), Sussman(2001)의 모형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목표수립 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예비연구 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종합적 모형으로 총 4단계 과정이다. 이 모형은 그 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에서 언급된 프로그램 개발의 하위절차를 포괄하며, 과학적인 절차를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순환적·재귀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가 제시한 프로그램 모형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세부내용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발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문헌연구 고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김순자, 장성화, 2015; 김연미, 1998; 박은경, 백지숙, 2012; 이현림, 박필자, 2006)이 대부분이었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최인숙, 2010; 최현주, 2015)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의 연구가 많았다. 발표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이해,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림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 의사결정능력, 진로계획 및 목표 영역에 맞춰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신세진, 2009; 정희영, 2007; 최숙경, 2006). 반면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인식 및 부정적 사고, 문제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처 방법 등 진로장벽을 해소하거나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한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현재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며, 그 중에서도 진로의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 13세~15세 전후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생의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예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203.237.168.47 at Saturday, June 10, 2023 3:07 PM

3. 요구분석 및 전문가집단 자문 분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다문화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대면하고 지도하는 교사 및 다문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적용 대상자의 개인 내적인 요구는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와 분석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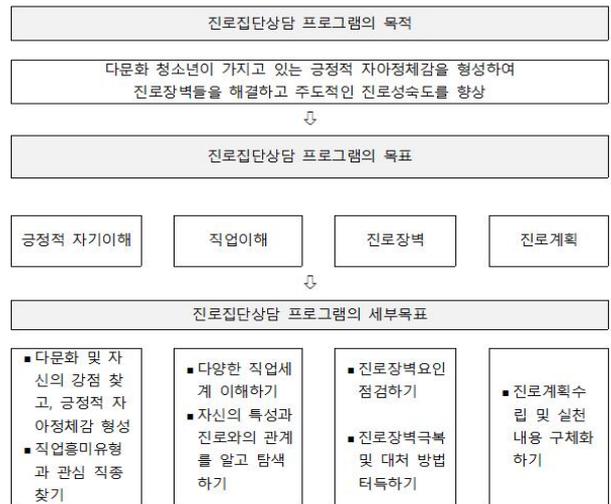
먼저,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다문화 청소년을 자주 대면하고 지도하는 교사와 관련 담당자를 만나 목적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부족한 내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구성내용에 관한 구체적 질문을 하고, 수집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한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아정체성 혼란, 집단구성원 간 역동성, 자신의 객관적 이해와 진로 탐색, 진로장벽 해소 및 구체적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유기적 활동들이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필수내용, 운영방법, 평가 방법, 추가 조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내용과 명백한 의도를 파악하는 검토과정을 거쳤다. 왜냐하면 향후 개발될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및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자문분석 결과에 따라 비슷한 내용은 통합하여 정리하였고, 직업이해, 진로장벽, 진로계획을 더하여 4가지 구성요소를 선정하여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문가집단은 프로그램 운영은 60분~90분, 소집단이 효율적이라고 자문하였지만, 본 예비연구에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평균 시간보다 10분 더 연장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을 강조한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추후 특강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었다.

4.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프로그램에 적절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및 요구분석, 전문가집단의 자문분석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목표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5.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내용구성

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진행되며, 4개의 목표영역인 긍정적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장벽, 진로계획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자기이해’ 영역은 진로발달적 측면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다중지능검사, 직업흥미유형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객관화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것에 적합한 직업군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진로유형검사, 흥미와 강점 찾기, 다문화의 강점을 활용한 직업 발견, 다중지능 영역별 체험 활동, 직업 동영상 게임 활동 등을 구성하였다.

‘직업이해’ 영역은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또한 미래 유망 직업을 탐색해 보고, 진로계획과 진학정보를 직접 탐색하는 활용 능력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직업정보 사이트 활용하기, 직업카드 분류하기, 직업카드 빙고게임, 미래직업 상상하기, 다양한 진학방법과 정보탐색 활동 등을 구성하였다.

‘진로장벽’ 영역은 진로장벽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아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의 슬기로운 대처와 극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방해하는 진로장벽 요인을 점검하고, Ellis의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한 긍정적 사고 전환을 연습해 본다. 이 활동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부정적 신념들에 대해 사적 논리를 적용하여 논박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합리적 신념을 찾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장완성하기,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 구분하기, 긍정적 사고 전환 연습, 진로장벽 목록 작성, 이미지 메이킹, 비

합리적 생각 날려버리기 활동 등을 구성하였다.

'진로계획' 영역은 자신의 진로신념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경험하고 실천적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마무리 과정 단계로 사후검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꿈을 향한 나의 커리어 플랜 짜기, 미리 쓰는 나의 이력서, 꿈 편지 작성, 서로 응원하기 활동 등을 구성하였다.

**6.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개발된 1차 프로그램은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Guilford와 Fruchter(1981)가 실용화한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을 진행하여 적절한 내용타당도 수준(.93)의 평가를 받았다. 예비연구는 서울 D중학교 3학년 다문화 청소년(중국어:5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 2016년 6월 7일~7월 13일까지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후 운영과정평가, 회기별 활동 후 성과평가와 만족도평가, 자문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진로장벽을 해소하고 진로성숙도를 향상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문화 출신 유명인 사례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와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처와 극복 방법을 습득하도록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및 집중력, 학습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설명 중심을 지양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쉽게 전달하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과 참여형 활동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회기별 활동량을 고려하여 시간과 활동내용을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최종안'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최종안

구성요소		회기	회기별 목표	활동내용
대영역	소영역			
긍정적 자기이해	진로집단 상담의 안내 및 소개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의의를 알고 자기소개를 통해 집단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안내하기</li> <li>■ 자기소개하기/ 사전검사 실시</li> <li>■ 다문화가정 출신 유명인 하인즈 워드와 인순이 사례 영상 시청 후 감상나누기</li> </ul>
	나의 강점 찾기	2	자신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잘하는 것 찾기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지능에 대한 이해</li> <li>■ 내가 잘하는 것 찾기</li> <li>■ 다문화의 강점을 활용한 직업 발견하기</li> <li>■ 동영상 '천재들의 전쟁'을 활용한 다중지능 영역별 체험 활동</li> </ul>
	나의 흥미 찾기	3	객관적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 흥미유형을 알아보고, 흥미유형에 맞는 직업탐색 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lland 직업흥미유형검사</li> <li>■ 유형별 자신의 흥미 발견</li> <li>■ '나'의 직업 예측하기</li> <li>■ 직업 동영상 게임하기</li> </ul>
직업이해	직업세계 여행	4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직업을 탐색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유망 직종 소개</li> <li>■ 직업카드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li> <li>■ 직업카드 활용 빙고게임</li> <li>■ 변화하는 직업세계 탐구</li> <li>■ 미래의 직업 상상하기</li> </ul>
	나의 직업 탐색	5	진로 및 직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활용 능력을 함양하여 '나의 흥미와 문화 환경에 맞는 진로정보를 선별하고 탐색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정보 사이트 활용</li> <li>■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과 RIASEC 유형의 직업군 비교해 보기</li> <li>■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 선택하기</li> </ul>
진로장벽	진로장벽 이해	6	자신의 감정, 행동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전환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서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완성하기→자기 정서와 비합리적 생각 찾기</li> <li>■ 다문화 출신 래퍼 Dok2(도끼)를 통해 진로장벽 개념과 극복의지 배우기</li> <li>■ 다문화 출신 아역 스타(황민우, 지대한)의 꿈 도전기 들어다보기</li> <li>■ 성취 경험 만화 그리기</li> </ul>
	진로장벽 요인점검 (ABCDE 모형이론)	7	비합리적 신념, 진로장벽 요인들을 점검한 후, 진로장벽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li> <li>■ 진로장벽목록 작성하기</li> <li>■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구분 연습</li> <li>■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한 사고전환 연습</li> </ul>
	진로장벽 극복 (ABCDE 모형이론)	8	비합리적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장벽 극복의지를 다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 속 비합리적 생각을 찾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li> <li>■ 이미지 메이킹, 역할극</li> <li>■ 풍선 날리기'를 통한 비합리적 생각 날려버리기</li> </ul>
진로계획	새로운 '나'를 꿈꾸기	9	미래 직업에 대한 잠정적 결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진학·진로계획 세우기</li> <li>■ '나'의 미래 모습 상상화 그리기</li> <li>■ '나'만의 상상이력서(창의적 진로활동)</li> </ul>
	'나'의 꿈을 향한 자신감 찾기	10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정리하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천의지를 다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띄우는 꿈 편지 작성하고 발표하기</li> <li>■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 나누기</li> <li>■ 서로 응원하기</li> <li>■ 사후검사</li> </ul>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론과 활동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따라서 Ellis의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진로장벽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 훈련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안을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안

7회기 : 진로장벽 요인 점검					
단계	진로장벽	운영방법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시간	100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llis의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진로 관련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등 상황을 파악해 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li> <li>●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정립할 수 있다.</li> </ul>				
과정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 요인을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li> <li>● 오늘 진행될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li> </ul>				
전개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 &lt;활동지 11 활용&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본 후, 건강한 '나'의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 부분에 체감하는 만큼 막대그래프를 오려 붙인다.</li> <li>- 또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부분에 막대그래프를 오려 붙이고, 구체적인 노력 내용을 적는다.</li> <li>- 막대그래프를 통해 자신이 진로장벽에 대한 체감지수와 노력지수를 파악해 본다.</li> </ul> </li> </ul>			
	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 목록 작성 &lt;활동지 12 활용&gt;</li> <li>●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 구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 주변의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찾아 구분한다.</li> </ul> </li> </ul>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하기를 통한 사고전환 연습하기 &lt;활동지 12 활용&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li> <li>- Ellis의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진로 관련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li> </ul> </li> </ul>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소감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를 표현하면서 감정에 대한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본다.</li> </ul> </li> <li>● 다음 회기 내용 및 활동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대처방법을 알아본다.</li> </ul> </li> </ul>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합리적인 생각을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신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준다.</li> <li>● 활용지를 활용할 때에는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li> </ul>				
준비물	● PPT 자료, 활동지, 펜,				

#### IV. 프로그램 효과 분석

##### 1. 연구대상 및 특징

본 연구는 서울 D중학교와 J학교 다문화 청소년(중국계, 네팔계, 몽골계) 16명을 대상으로 2016.09.07~10.27 까지 10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	성별	연령(만)	소속	특징			
				문화배경	부	모	특성
참여자A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자신감 부족, 열등감
참여자B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	무기력, 소극적, 열등감
참여자C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열등감, 자기표현 부족
참여자D	여	15	D중학교	중국계		○	독창적, 친화력, 관심욕구
참여자E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한국어 능력 낮음, 소극적
참여자F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자신감 부족, 관계원활
참여자G	남	15	D중학교	네팔계	○	○	다문화 열등감, 위축 상태
참여자H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	적극적, 배려심 많음
참여자I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짜증 많음, 소극적
참여자J	남	15	D중학교	중국계		○	집중력 부족, 자신감 부족
참여자K	여	15	J학교	몽골계	○	○	명랑, 적극적, 자신감 부족
참여자L	여	14	J학교	몽골계		○	관심 욕구 많음, 감정변화
참여자M	남	15	J학교	몽골계	○	○	호기심 많음, 영리함
참여자N	남	14	J학교	몽골계	○	○	열등감, 자신감 부족
참여자O	남	15	J학교	몽골계		○	한국어 능력 부족, 소극적
참여자P	여	15	J학교	몽골계		○	언어능력 좋음, 산만함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만 14~15세 전후이며, 네팔계 청소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다. 대부분 어머니의 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취업 및 학업 등 기타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하여 두 나라 문화배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생계에 전념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과 관심이 적고,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편모나 편부 가정이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경험이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며 열등감이 많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해 부정적 경험과 경제적 열악함, 생계유지에 바쁜 편부, 편모가정으로 인한 관심과 지지 부족으로 야기된 특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일부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소한 지적

에도 감정적 대응이 많았고,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습부진으로 인해 수업 중에도 었드려 있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본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은 이전까지 어떠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어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무지한 편이었다.

**2. 분석절차 및 자료 분석**

분석절차는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만족도평가 설문조사, 상담운영일지 검토 및 사후 개별 인터뷰 순으로 진행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주 1~2회씩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1회기 100분)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자아정체감 검사(문순태, 2003), 진로장벽 검사 여성용(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및 남성용(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진로성숙도 검사(송혜정, 2013)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하위요인, 문항,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변화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각 영역별 프로그램 완료시마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총 4회) 구체적 진술을 수집·분석하여 참여자 중심의 시각에 근거한 현상학적 접근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시도한 대표적 학자인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과정을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해석을 보완할 통계적 분석기법인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도 병행하였다.

<표 4> 측정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자아 정체감	주체성	0.78
	자기수용성	0.77
	미래 확산성	0.69
	자아정체감	0.88
	자기이해의 부족	0.90
진로 장벽	자신감 부족	0.82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0.75
	타인과의 갈등	0.7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0.76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0.80
	경제적 어려움	0.78
	진로장벽	0.91
진로 성숙도	독립성	0.81
	계획성	0.88
	일에 대한 태도	0.77
	자기이해	0.89
	진로성숙도	0.95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통계적 분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t=3.22, p<.01$ ), 진로장벽( $t=-8.15, p<.001$ ), 진로성숙도( $t=5.89, p<.001$ )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5>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사전-사후 결과 분석 (n =16)

구분	사전		사후		사전-사후		t
	M	SD	M	SD	M	SD	
자아정체감	2.65	0.54	3.22	0.48	0.57	0.71	3.22**
진로장벽	2.44	0.40	1.84	0.36	-0.60	0.30	-8.15***
진로성숙도	3.26	0.52	3.95	0.29	0.70	0.47	5.89***

\*\*\* $p<.001$ , \*\* $p<.01$ , \* $p<.05$

**3.2 실험집단의 변화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은 개인적 속성보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방법으로써,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도출된 의미를 주제 및 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화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입 전·후에 따른 실험집단의 핵심 변화 경험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Colaizzi의 자료 분석 방법이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의미, 관련성, 주제, 주제묶음, 범주의 6단계 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유목화 하고 중심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3가지 문항(자기 이해와 변화 경험, 직업세계 이해 및 정보획득, 진로 갈등 해소)에 대한 진술 185개 중 의미 있는 구체적 진술 95개를 추출하고, 다시 유목화 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속성을 정리하여 8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심리 전문가이며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에게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성요소 각 영역별에 따른 집단구성원의 핵심 변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집단구성원들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들의 말과 행동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보완점 및 개선점들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출결과 분석은 향후 완성도 높은 다문화 관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 변화 경험의 핵심 범주와 중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rovider:article] Downloaded by IP 203.237.168.47 at Saturday, June 10, 2023 3:07 PM

**<긍정적 자기이해>**

집단구성원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열등감이 강하고, 소극적이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미숙하였다. 또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없으며 무기력하게 보내는 편이었다.

**■ 새로운 능력발견 및 성공경험**

대부분 본인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권유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진로동기가 매우 낮았다. 게다가 다문화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성향이 강해서 친밀도가 없어 어색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부터 집단구성원들은 다중지능 검사와 Holland 직업흥미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강점과 능력 등 '객관화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중지능 체험활동과 직업동영상 활동, 직업카드 활동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강점을 확인하였고, 팀 미션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태도가 변화하는 구성원이 증가하였다. 대부분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점을 적극 발휘해봄으로써 긍정적 성공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어 좋았어요. 항상 남들과 비교당해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번에 저도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아요." (참여자A)

"제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처음이에요. 기본이 좋았어요. 다중지능 체험활동인가? 그거 재밌었어요! 단어 외우기 게임에서 제가 우승한 거 아시죠? 그때 성취감을 느껴요! 또 불안했던 마음도 풀어진 거 같아요. 나중에 승무원이 되면 선생님 비행기 공짜로 태워줄게요~." (참여자K)

"강점을 알아가는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내 강점과 거기에 맞는 직업이 뭔지 자세히 알아서 좋았어요." (참여자F)

**■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

어색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집단구성원들은 자기소개틀 하고, 다문화가정 출신 유명인의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혼혈인으로서의 아픔을 딛고 유명인으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 대부분은 공감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이 다문화가정임을 인정하는 마음과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회피하고 싶은 양가적 감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후 다문화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과 성공 사례 탐색 활동을 통해 언어적 강점을 활용한 외국 고객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 문화적 강점을 활용한 여행 플래너, 신체와 외모적 강점을 활용한 모델,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 언어와 문화적 강점을 융합 활용한 해외 주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가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드러내는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노력 여부에 따라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인즈 워드와 인순이의 동영상과 '거위의 꿈' 노래를 부를 때 울컥했어요. 그때 저의 꿈을 갖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다문화가정이 나한테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데...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참여자J)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왠지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참여자O)

**<직업이해>**

집단구성원은 대체로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향후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와 그 직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는 관심과 열정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꿈을 위한 자기이해 및 구체적 탐색과정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및 확장**

앞서 진행된 3회기의 개인별, 팀별 활동들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된 집단구성원들은 '직업이해' 영역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직업이해에 대한 집중적 활동들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관한 다양한 탐색활동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학 및 진로계획을 스스로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직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한 탐색활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중요성과 자신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먼저 파악하여 명확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 꿈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첫 만남 시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구성원들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팀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언어적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에게는 진행자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활동지 작성법도 친절히 알려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자신 및 친구의 진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직업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가 평소애 좋아했던 1박 2일과 꽃보다 시리즈를 만든 사람이 나영석 PD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저의 롤 모델하려고요~ 나영석 PD 말대로 직접경험에는 한계가 있으니, 책이나 영화, 음악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노력 많이 해야겠어요!" (참여자D)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이 꿈을 이루어나간 과정을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더 감동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성공한 모습만 부러워했는데, 그 뒤에 많은 고민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K)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걸 알았더니...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런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친구랑 같이 검색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대로 따라하니 어렵지 않았 습니다." (참여자M)

**■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가치관 재정립**

꿈을 위한 자기이해 과정과 구체적인 탐색과정 기회

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꿈을 꾸는 집단구성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아무런 꿈조차 없는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나마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부 집단구성원의 경우도 대부분 자신의 흥미나 재능, 장래성보다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많은 비중을 두거나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등 매우 편협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카드를 분류하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다행히 집단구성원들은 다른 직업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직업카드를 활용한 빙고게임과 직업정보 사이트 탐색활동에서 재미를 느꼈다. 그 결과 집단구성원들은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좋아하는 직업도 다를 수 있고, 같은 분야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직업이 생성, 소멸,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및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가치관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저한테 자꾸 관심을 갖고 말을 거는 것이 진짜 귀찮고 짜증나서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더라구요. 그리고 농구선수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기만 했지..... 저랑 신체적인 특징도 맞아야 하는데, 그런 점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C)

“지금 한참 인기 있는 직업이 미래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참여자N)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직업도 생각보다 많았고, 직업만 알 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직업카드를 분류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제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한 거 같아요.” (참여자O)

#### <진로장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상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다문화가정과는 달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구성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많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가정도 있었으며,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한국인 아버지를 둔 가정도 있었다.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기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집단구성원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자신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곧바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진로성숙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 ■ 진로장벽에 대한 사고전환

‘진로장벽’ 영역은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된 프로그램 활동들로 인해

집단구성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고, 관심 분야와 관련한 직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체감하고 있는 진로장벽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진로성숙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신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먼저 집단구성원들은 꿈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다문화가정 또래친구들의 사례(힙합 래퍼 Dok2, 리틀 싸이 황민우, 영화배우 지대한)들을 통해 공통된 아픔과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 후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며, 서로의 고민과 상처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고착화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Ellis의 ‘ABCDE 모형이론’을 적용한 사고전환 활동을 연습해 보았다. 이 활동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을 철저히 논박해봄으로써 건전한 정서발달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아빠나라에 온 지 4년 됐어요. 지금도 한국말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놀림도 많이 받았고 왕따도 당했어요.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중국어로 노래하니 많이 떨렸어요..... 근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쳐주니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꼭 게임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E)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니 더 친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F)

“리를 싸이와 지대함을 보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개네들은 나보다도 어린애들인데도 다문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력했잖아요. 저도 제 꿈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J)

#### ■ 합리적 대처능력 습득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비합리적 생각들에 대해 점검하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집단구성원들은 ‘문장완성하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정서와 비합리적 생각들을 발견하였고, ‘성취경험 만화 그리기’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긍정적 생각과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장벽 요인을 점검하고 체감 정도를 그래프로 파악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점과 실천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짓눌렀던 진로장벽 요인들을 풍선에 적은 후 날려 보내는 활동도 하였다. 집단구성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오히려 ‘다문화’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강점일 수 있고, 자신만의 개성일 수 있음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해야 하니까 창피했어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빠가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좋았어요.” (참여자G)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욕심만 부렸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꼭 실천해야겠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처럼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참여자L)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풍선에 적어 날려보니,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고민도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A)

<진로계획>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경험이 별로 없으며, 무계획적이며 막연히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고정관념이 강해 편협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고, 단계별 계획과 실천에 대한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었다.

■ 명확한 나의 꿈 설계

2회기로 구성된 ‘진로계획’ 영역은 본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과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집단구성원들은 초반의 무계획적이며 막연히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후반에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 노력 여부 등과 연결하여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단구성원들은 ‘진학 및 진로계획 세우기’ 활동에서 퍼즐 하나하나에 단계별로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갔다. 또한 미래의 모습과 의지를 표현해보는 ‘미래모습 상상화 그리기’ 활동과 창의적 진로활동인 ‘나의 상상 이력서’를 통해 구체적 꿈을 설계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제 꿈과 신념을 칭찬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변호사로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명함을 만들어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가 생겼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시다.” (참여자M)

“꿈과 계획들을 단계별로 고민하면서 눈에 띄게 표현하니 아무런가를 이루어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B)

“거울 속에 비친 미래의 나를 그려보니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거 같았어요! 건축가가 돼서 멋진 집을 엄마한테 선물해 주는 내가 멋져 보였어요.” (참여자H)

■ 꿈을 향한 전념행동 의지

집단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이어진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 탐색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진학과 진로계획을 단계별로 구체화 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 활동들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은 불분명했던 자신의 꿈을 더 명확히 설계할 수 있었고, 꿈을 향한 전념행동 의지도 다짐할 수 있었다. 특히 전념행동 의지는 ‘꿈 편지’ 발표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초반의 수줍고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에 대해 언급한 후 당당하

게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집단구성원들은 꿈 편지 발표 때마다 서로 힘찬 박수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또래의 이러한 진심어린 지지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꿈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향후 자신의 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막연히 꿈을 꾸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환경 조건과 잘 맞는지, 어떤 계획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참여자P)

“꿈 편지를 쓰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뭘 자꾸 쓰러니 생각도 나지 않고.....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막 쓸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활동했던 것들을 떠올려보니 써야할 내용들이 생각났어요.” (참여자J)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어려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개발에 필요한 절차와 다양한 평가과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내용과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신재은(2012) 역시 이 점을 강조했다. 본 프로그램은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체계적 개발 단계와 다각적 평가과정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Parsons(1909)의 특성요인이론, Ellis(1987)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이론, Super(1951)의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어 이해력과 학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기 100분으로 구성하여 활동지 작성 및 개념이해에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며,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쉽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중력이 부족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흥미를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형 활동과 체험활동,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 창의적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들은 서먹했던 집단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며, 고민과 아픔에 공감하고 상호지지를 통해 역동적 모습으로 변화하는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203.237.168.47 at Saturday, June 10, 2023 3:07 PM

과정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활동지도 글을 읽고 써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과 간단한 글로 시각화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다문화 관련 진로교육 및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초등학생 중심의 연구가 많았으며(구영환, 2013; 최인숙, 2010), 사춘기와 맞물려 자신의 정체성 및 개인적, 사회적 다양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이 진로장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올바른 진로성숙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김순자, 장성화, 2015; 신미진, 2008; 최인숙, 2010). 매 회기마다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요소 영역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 중 긍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출신 유명인과 또래친구의 성공 사례 동영상은 다문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집단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긍정적 자기수용 바탕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다중지능과 직업 흥미유형 검사를 통한 직업탐색, 체험과 참여형 활동을 통한 강점과 흥미 발견, 진로장벽 체감 그래프와 긍정적 사고 전환 연습을 통한 진로장벽 요인을 점검과 개선점 구체화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로장벽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힙합 래퍼 'Dok2(도끼)'가 혼혈인, 학력, 외모, 가난이라는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 다소 추상적인 진로장벽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쉽게 전달하였기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사례는 이어지는 활동들에서 매우 소극적이었던 다문화 청소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 솔직하게 자신의 다양한 진로장벽 문제에 마주하는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문장완성하기 활동은 현재 자신의 정서와 비합리적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파악된 진로장벽 요인은 'ABCDE 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보는 연습을 하였고, 진로장벽에 대한 자신의 체감정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활동은 향후 개선점과 노력들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구성원들은 처음의 서먹했던 관계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이라는 공통점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상처에 대해 고백하고 공감하며 상호지지를 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을 회복해나갔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이로 인해 진로장벽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향상은 1~10회기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긍정적 자기이해와 진로장벽은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춰 활동들을 적절히 구성하여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직업이해는 집중력과 한국어 이해력이 부족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와 참여형 활동들을 구성하여 흥미를 유지하면서 직업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진로계획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 노력 여부 등과 연결하여 진로를 고민하고,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단계별 진학 및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해나가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진로교육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발휘하도록 조력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재학 비율이 많은 일반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및 다문화 지역센터, 다문화 진로캠프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적인 표집의 분포가 서울에만 치우쳤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후 수정 및 개선 과정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Tuckman은 중학교 1~2학년은 직업관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의사결정의 기본요인들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충기, 장선철, 2011). 또한 교육부의 '2015년 학교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역량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장벽을 해결하여 주체적인 진로성숙도를 향상하도록 조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본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의 사결정과 사회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구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현명한 진로의사결정과 사회적 역량개발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을 반영한 후속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 진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지역적 특성, 문화적 배경, 집단구성원의 살아온 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다른 전문가들이 다양한 환경과 여러 대상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재검증해 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두 나라 문화배경을 가진 글로벌 미래의 주인 공인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진로설계 및 계획이 필요하다. Parsons의 특성요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 환경 요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라는 자신만의 강점을 융합하여 적극적으로 직업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직(Job Creation)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영환 (2013).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능성 검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 장성화 (2015). 직업카드를 활용한 중학생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효과 연구. 아동교육, 24(3), 117-130.  
 김연미 (1998).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19, 69-88.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선 (201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집단상담 운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충기, 장선철 (2011).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김혜경 (2012).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 유진아 (2009).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17-32  
 김혜정 (2016).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성창 (2015).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부.  
 문승태 (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심리적 변인 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애 (1997). 인지·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박상철 (2013). 진로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은경, 백지숙 (2012).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67-76.  
 박인우 (1995). 효율적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모형. 지도상담, 20, 19-40. 대구: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박진우, 장재홍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변창진 (1994). 프로그램개발. 대구: 흥익출판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지원대책. 제74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  
 송혜정 (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미진 (2008). 직업체험을 활용한 중학생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선영 (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성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203.237.168.47 at Saturday, June 10, 2023 3:07 PM

- 신세진 (2009).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은 (2012). 재활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REBT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지웅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대한 성별 및 학년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6a). 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 지원'이다. 2016.03.09.
-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04.27.
- 윤대영 (2016).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3).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09).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박필자 (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인식 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1), 191-210.
- 이혜진, 장석진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19(4), 837-858.
- 장임숙, 김희재 (2014).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정하성, 유진아, 이장현 (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서울: 양서원.
- 정하성 (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국학술정보.
- 정희영 (200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초등상담연구, 9(2), 235-250.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정책연구 과제 2006-이슈-3, 교육인적자원부.
- 최광현 (2016). Olson의 Circumplex 모델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 아동의 자아탐색, 또래 및 가족관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4), 103-112.
- 최숙경 (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 장애,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희 (201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1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진로상담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2016 청소년 통계.
-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riss.kr) 통합검색. 2016.06.09.
- 행정자치부 (2016).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42호, 125-159.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성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3.
- 허소경 (2015).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eiv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 A. & Dryden. W. (1987). The practice of rational emotive therapy. New York: Springer.
- Guilford, J. P. & Fruchter, B. (1981). Fundamental Statist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McGraw.
- Marcia, J. E. (198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Sussman, S. & Wills, T. A. (2001). Rationale for program development methods. In S. Sussman(Ed), Handbook of program development for health behavior research & practice(pp.3-30). Thousand Oaks, CA:Sage.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2017년 10월 19일 접수)

1차 심사완료 : 2017년 11월 06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17년 11월 27일

3인 익명심사필